



2012 수능 언어영역 '시'

수능 시,  
선지  
심층분석

지근성

## <판단부위 설정이 왜 필요한가?>

판단부위란 저자가 만들어 낸 말로, 선지의 정오를 판단할 때 판단해야 하는 부위라는 용어이다. 기출 선지의 예를 통해 판단부위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자.

06년도 수능 15번 1번 선지.

‘영탄적 표현을 통해 고조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이 선지에서 ‘영탄’이 판단부위이고, ‘고조된 감정’은 판단부위가 아니다.

‘영탄’이라는 표현은 정오의 판단을 확실하게 할 수 있어 모든 수험생이 공감할 수 있는 반면, ‘고조된 감정’의 경우는 보는 이에 따라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조된 감정’이 아니라서 이 선지가 틀렸다고 문제를 만들 경우에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출제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평가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출제원칙인 ‘그대로 읽기’ 능력을 측정하는 표현이 아님에도 오답시비를 불러일으킬 만한 출제는 하지 않는 게 당연하다.

2005년도 9월 평가원 이의신청에 대한 평가원의 답변을 살펴보자.

전반적으로 제기자는 답지의 창작시를 읽으면서 **일부분을 확대 해석하여 자신의 주관적 견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소홀히 한 채, 덜 중요한 부분에 몰두한 해석은 널리 공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답지의 창작시 각 편 전체를 읽고 대의에 유의해서 읽어 보면, 상대적으로 답지 ①의 창작시가 드러내는 내용과 정서가 [A]의 그것과 더 가깝고, 이에 비해 ②번을 위시한 오답지의 창작시는 내용과 정서에서 [A]와 결정적인 상이점이 있음을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뚜렷한 상이점을 전혀두고 그렇지 않은 유사점에 집착하는 일은 이 문항이 지향하는, 시 쓰기와 읽기, 그리고 예술작품을 비교하며 이해하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위의 평가원 답변 중에 밑줄 친 부분을 살펴보자. 평가원이 이의제기자에게 답이 안 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는 널리 공감을 얻기 어렵다.’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보면 대다수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은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이므로, 출제할 때도 대다수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문제는 출제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고로 정오를 판단하는 부위는 누가 보더라도 명확한 부분에서 결정된다. ‘고조된 감정’ 과 같은 판단부위가 아닌 부위를 선지에 끼워넣을 때는, 평가원에서 대다수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을 넣어 정오를 판단할 필요가 없게 만든 것이다. 판단부위를 설정하는 근거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제 '판단부위 설정을 왜 하는가' 를 알아보자.

판단부위 설정을 하면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시간단축. 판단해야할 표현들을 압축시켜서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둘째는 정답률 상승. 판단할 필요가 없는 표현에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오답률을 낮출 수 있다.

#### <판단부위에 대한 추가 설명>

위의 설명을 읽고 나서 오해하기 쉬운 점이 있는데, 선지에 나오는 구절이 판단부위 또는 판단부위가 아닌 부위 이렇게 둘 중 하나로 구별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판단부위는 해당하는 시에 따라 다르다. 무슨 말이냐면 같은 선지표현이라도 시에 따라서 판단부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물론 시에 상관없이 항상 판단부위인 부분, 판단부위가 아닌 부분도 있다.)

'단호한 어조'를 예로 들어보자. 단호한 어조라는 것이 상당히 애매한 말인데 그렇다고 판단부위가 아닌가? 그렇지 않다. 이육사의 시 같은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단호한 어조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 때는 판단부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시들은 단호한지 아닌지 애매한 경우가 많다. 그 때는 판단하지 않고 스킵한다. 그리고 김영랑의 시 같은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부드러운 어조이기에 단호한 어조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 때도 판단부위에 해당한다.

**이상이 판단부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다.**

**“이번 저서의 목적은 단순히 판단부위를 설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판단부위의 개념을 이용하여 선지를 보다 깊이 이해하여 불필요한 고민들을 없애는 데 있다.”**

사실 판단부위는 문제유형에 따라 그것이 갖는 의미가 다른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판단부위가 아니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틀렸다고 판단하기 좀 그렇다는 뜻이고, 다수가 생각할 때 맞다고 인정되는 범위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에서는 판단부위가 없는 것이 답이 될 수 없지만, 적절한 것을 고르라는 문제에서는 판단부위가 없는 것이 답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 책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위에 설명한 개념들을 머리 속에 충분히 새겨 넣고 시작해야 한다. 이 책을 공부하고 나면 선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조금 더 출제자의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 - 판단부위가 있는 선지만이 답이 될 수 있다.  
적절한 것을 고르라. - 판단부위가 없는 선지도 답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답이 될 가능성 또한 높다.**

### <이 책 공부할 때 유의할 점>

1. '내가 출제자라면..' 이라는 마인드를 항상 갖는다.
2. 선지를 보기 전에 문제가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인지,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지 살펴본다.
3. 적절하지 않은 문제의 경우 이런 생각을 갖자.

내가 고민하는 부분이 과연 출제자가 평가하려는 부분일까?

(3번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책을 공부하다보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4. 이 책은 선지 분석을 통해 보다 출제자의 시각에 접근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찍기연습이 목적이 아님을 명심한다.
5. 선지 분석한 것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 사고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해하면 스스로 할 수 있다. 전혀 외울 필요가 없음)
6. 문제 옆에 쓰여있는 것은 시행된 날짜이다. 예를 들어 07. 6월이라면 07년 6월에 시행된 평가원 모의고사로, 08년도 6월 평가원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수능은 06수능이면 06수능이다. 이처럼 표시한 이유는 시중의 기출문제집이 이런 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공부할 때, 혼동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였다.

<목차>

05.6월 - 15번,18번

05수능 - 17번,19번

06.6월 - 15번,40번

06.9월 - 28번

06수능 - 15번,16번,19번,28번

07.6월 - 13번,14번,15번,17번

07.9월 - 13번,15번,16번

07수능 - 28번,29번,30번,31번,32번,51번,52번,56번

08.6월 - 20번,21번,22번

08.9월 - 28번,29번,30번,31번,32번

08수능 - 13번,14번,15번,18번

09수능 - 28번,29번,30번,31번,32번,33번

15. (가)~(다)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05. 6월)

- ①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생생한 현장감을 자아내고 있다. - 답이 될 수 있는 선지. 현재 시제인지 판단하면 된다. 생생한 현장감은 틀렸다고 할 때 오답시비가 걸릴 수 있으므로 판단부위가 아님.
- ② 대상과 일정한 거리를 두어 일상적 삶을 반성하고 있다. - 답이 될 수 있으나 가능성이 낮은 선지. 판단 부위가 셋. 대상과 거리를 두는지(이 부분은 애매한 경우는 판단하지 않고 스킵), 일상적 삶인지, 반성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면 된다. 이렇게 판단 부위가 여럿인 경우 선지 내용 중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나 확인하기 쉬운 부분만 우선적으로 판단하면 된다. 그런데 이 선지는 답이 될 가능성이 낮은 선지이므로 맞는지를 확인하기보다는 틀렸는지를 판단하는 게 좋다.  
예를 들어, 대상과의 거리를 포인트로 놓고 판단을 한다면, 거리를 두는지를 판단하지 말고 친밀감을 드러낸 시가 있는지 판단하는 게 빠르다.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 선지는 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으므로 일단 넘어간 후에 답이 안 나올 때 확인해보면 된다. 이 선지가 답일 가능성이 낮은 이유는 판단부위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판단부위가 세 개 이상인데 시 3개가 모두 그 조건을 만족하기 어려우므로 답일 가능성이 낮다.
- ③ 자연에서 발견한 가치를 통해 인생의 소중함을 노래하고 있다. - 답이 될 수 있으나 가능성이 낮은 선지. 자연에서 발견한 가치가 있는지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면 되는데, 자연에서 가치를 발견하는 것은 시 세 개에 공통적으로 나올 수 있지만 인생의 소중함은 그렇지 않다. 인생의 소중함이라는 것은 주제를 나타내는 데, 제시된 시 세 개가 주제가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렇지만 판단부위가 있기 때문에 답이 될 수는 있다.
- ④ 시적 화자를 시의 표면에 직접 내세워 시인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답이 될 수 있는 선지. 시적 화자가 표면에 드러났는지 (1인칭 표현이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시인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는 구절은 판단 부위가 아니다. 이 구절이 틀려서 답이 됐을 경우, 오답시비가 장난 아닐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 ⑤ 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시상을 마무리함으로써 시적 여운을 남기고 있다. - 답이 될 가능성이 높은 선지. 판단부위가 없기 때문에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는 답일 가능성이 높고,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는 답이 될 수 없는 선지이다. 판단부위가 아니라는 것은 틀렸다고 하기 애매하다는 의미이고 다른 말로 다수가 맞았다고 공감할 수 있는 범위라는 뜻이다. '감각적'이라는 선지표현은 상당히 출제빈도가 높은 표현인데 이 부분은 판단부위가 아니다. 감각적이지 않은 시는 없기 때문이다. 'A하여 시상을 마무리 한다.'는 구절은 '시 끝에 A가 있다.' 라는 뜻과 완전히 같다. '시적 여운을 남긴다'는 판단 부위가 아니다. 따라서 선지5번을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하고 싶다면 시 끝부분에 감각적 이미지가 있는지 살펴보면 된다.

이 문제의 답은 5번이다.

18. (다)에 사용된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05. 6월)

- ① ‘나룻가’, ‘주막’, ‘산기슭’ 등의 공간을 활용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답이 될 수 없는 선지. 판단부위가 없다. 이게 답이 되려면 나룻가, 주막, 산기슭 등이 공간이 아니면 된다. 출제자가 문제를 낼 때, 학생들이 나룻가 등이 공간인지 아닌지 판단하길 원하진 않았을 것이다.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는 말은 ‘이 것은 시이다.’ 정도의 의미로 아무 의미 없는 표현이다.
- ② ‘행인’, ‘주인집 늙은이’, ‘장꾼들’과 시적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은 동일하다. - 답이 될 수 있는 선지. 제시된 세 인물들이 화자와 동일한 상황인지 판단하면 된다.
- ③ ‘강바람’과 ‘설레는 바람’은 고향에 대한 시적 화자의 심리를 담아내는 매개체이다. - 답이 될 가능성이 극히 낮은 선지. 제시된 시어들이 고향과 관련된 것들인지 판단하면 된다. 그런데 선지가 이렇게 나온 걸 보면 당연히 제시된 시가 고향에 관한 내용일 것이니 답이 될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화자의 심리를 담아낸다’는 판단 부위가 아니다. 화자의 심리가 들어있지 않은 시는 없다고 보면 된다.
- ④ ‘공연히’, ‘아직도’, ‘혹여나’ 등 부사어를 통해 시적 화자의 내면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답이 될 수 없는 선지. 판단 부위가 없다. 굳이 따지자면 화자의 내면을 나타내는 것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되는데, 저 부사어들은 심리가 드러나는 표현들이므로 당연히 맞다.
- ⑤ 첫 행과 마지막 행의 ‘내음새’는 고향에 대한 기억을 그리움으로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 답이 될 가능성이 극히 낮은 선지. 이유는 선지3번과 같다. ‘확장시킨다. 확장된다.’ 따위의 표현들은 그냥 ‘있다.’ 와 동의어라고 생각하면 된다. 즉,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 와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문제의 답은 2번.

17. (가)에 대한 감상문을 쓰기 위해 <보기>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05수능)

<보 기>

- 발표 연도: 1938년
- 작가 소개: 이용악의 고향은 함경북도 경성이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소금 장사를 하였는데, 아버지의 객사(客死)로 어머니가 생계를 꾸려야 했다. 어려서부터 궁핍한 생활을 했던 이용악은 일본 유학 시절에도 품팔이로 학비를 조달했다. 그러면서도 방학 때면 으레 귀국하여 동포들이 모여 사는 간도 등지를 돌며 유이민(流移民)의 비극적인 삶을 살펴보기도 했다.

- ① 1938년에 발표된 것으로 보아, ‘가난’, ‘겨울’과 같은 시어를 일제 강점기의 시대적 상황과 관련하여 읽을 수도 있겠어. - **답이 될 수 없는 선지. ‘시와 보기가 관련되어 있다’는 말과 같은 의미로 당연히 맞는 선지.**
- ② ‘당나귀 몰고 간 애비 돌아오지 않는 밤’이라는 시구에서 시적 화자의 아버지가 객사했음을 알 수 있어. - **답이 될 수 있는 선지. 아버지가 객사했는지 판단해야 함.**
- ③ 이 시에 나타난 궁핍한 생활상은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작가의 실제 삶과도 관련 된다고 볼 수 있어. - **답이 될 수 없는 선지. ‘시와 보기가 관련되어 있다’는 말과 같은 의미로 당연히 맞는 선지.**
- ④ 유이민에 대한 작가의 관심이 털보네 가족의 삶으로 형상화된 것으로 보여. - **답이 될 수 없는 선지. ‘시와 보기가 관련되어 있다’는 말과 같은 의미로 당연히 맞는 선지.**
- ⑤ 함경도에서의 공간 체험이 시에 방언으로 형상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 **답이 될 수 없는 선지. ‘시와 보기가 관련되어 있다’는 말과 같은 의미로 당연히 맞는 선지.**

**답이 될 수 있는 선지는 2번뿐이므로 답 2번.**

19.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05수능)

- ① ‘빛나는 눈썹’, ‘수천만 황인족의 얼굴’은 은행나무 잎을 비유한 것이다. - **답이 될 수 있는 선지. 이와 같은 유형의 선지는 여러 번 출제되었다. 06.6월 ‘매화사’에서도 나왔고, 07수능 ‘고고’에서도 출제되었다. 06.6월과 07수능의 해당 선지를 보면 각각**

다음과 같다. ②‘황혼월’은 매화의 비유적 표현이다.(06.6월) ④‘원 산을 뒤덮는 적설’은 가볍게 눈에 덮여 있는 상태와 호응하지. 두 문제 모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는데 둘 다 답이다. 이 선지유형은 답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 ② ‘노래할 수 없다’, ‘우리 가슴에 적힐 것이다’라는 표현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나타낸다. - 답이 될 수는 있으나 가능성이 낮은 선지. ‘없다, 것이다.’ 라는 어미를 통해 의지가 드러나 있다.
- ③ ‘자기 뿔의 도롱이집을 가지 끝에 걸고’는 상황에 대한 운명적 수용을 나타낸다. - ‘운명적 수용’이라는 용어를 판단하라는 선지로 답이 될 수 있다. 운명적 수용이라는 용어는 개념어가 아니므로 판단할 때 출제자가 어떤 의미로 썼는지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 운명적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그런 것,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운명적 수용이라는 용어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여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의미가 된다.
- ④ ‘노오란 우산깃’이라는 표현을 반복 사용하여 대상의 의미를 확장하고 있다. - 판단부위가 없으므로 답이 될 수 없는 선지. ‘~라는 표현을 반복 사용하여’ 라는 구절은 저게 반복인지 살펴보라는 게 아니라 시에서 그렇게 쓰여 있다고 사실을 말해주는 부분이므로 판단부위가 아니고, ‘대상의 의미를 확장한다’는 구절은 틀렸다고 하기에 상당히 애매하므로 판단부위가 아니다.
- ⑤ ‘불타는 형상’은 ‘희망’을 감각화하여 표현한 것이다. - 답이 될 수 없는 선지. 희망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불타는 형상으로 시각화 시켰으므로 당연히 맞다. 또 이게 판단 부위하려면 감각화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하는데 ‘감각적, 감각화’ 이런 표현은 사실 정오판단을 묻지 않기 때문에 판단할 필요가 없다.

답이 될 수 있는 선지는 1, 2, 3번인데, 2번은 답의 가능성이 낮고 선지만 보고도 맞다는 걸 알 수 있으므로 답은 1번 or 3번. 이 문제의 답은 3번.

15.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06. 6월)

- ③ (다)는 지명을 통해 고향에 대한 정감을 환기하고 있다. - 답이 될 수 없는 선지. 이 선지를 보면 (다)시는 당연히 고향 얘기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이게 답이 되려면 ‘지명이 안 나와서’가 평가포인트가 되는데 출제자가 이걸 평가하길 원하진 않았을 것이다.(이 책을 공부할 때 유의점3번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이 말이 앞으로 자주 등장할 것이다. 단순히 내 멋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유의점3번에서 말했듯이 출제자의 입장에서 뭘 평가할지 생각하여 판단한 것이다.)

40.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06. 6월)

⑤ ㉣: 화자의 감회가 집약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 답이 될 수 없는 선지. 집약적이라는 말은 둘 중 하나다. 시 끝에 있거나, 특정 소재가 나오거나. 근데 집약이라는 선지는 항상 시 끝에 밑줄 쳐놓고 물어보거나, '집약적으로 마무리한다' 는 표현으로 나오므로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다. 이게 답이 되려면 화자의 감회(감상이나 느낌)이 안 나오면 되는데, 출제자가 그걸 평가하길 원하진 않았을 것이다.

28.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06. 9월)

① (가)와 (나)는 첫 연과 끝 연을 대응시켜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답이 될 수 있는 선지. 수미상관이라는 표현 대신 첫 연과 끝 연을 대응시켰다는 표현을 쓰면 완벽히 같지 않아도 비슷하면 맞는 것이다. '화자의 정서를 심화한다'는 판단부위가 아니다.

② (가)와 (다)는 시간의 경과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답이 될 수 있는 선지. 시간의 흐름이 있는지 판단하면 된다.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는 아무 의미 없는 표현으로 판단부위가 아니다.

③ (나)와 (다)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 답이 될 수 있는 선지. 객관적인 시각이라는 것은 바라만 보고 그것에 대해 적대감이나 친밀감이 없어야 한다.

④ (가), (나), (다)는 자연과 인간을 대립시켜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답이 될 수 있는 선지. 자연과 인간을 대립시켰는지 판단하면 된다. '주제를 부각한다'는 판단부위가 아니다.

⑤ (가), (나), (다)는 단정적 어조로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 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은 선지. 어조는 보통 어미를 통해서 판단하는데(내용도 같이 봐야하는 경우도 있음) 제시된 3개의 시가 모두 같은 어조일 가능성은 낮다. 그리고 어조는 보통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가 많다.

이 문제의 답은 1번.

15. (가)~(다)의 공통점으로 알맞은 것은? (06수능)

① 영탄적 표현을 통해 고조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 답이 될 수 있는 선지. 영탄이 있는지 판단하면 된다. 고조된 감정은 판단부위가 아니다.

- ②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답이 될 가능성이 높은 선지. 앞에서 봤듯이 감각이라는 선지표현은 판단할 수 있지만 거의 무조건 맞기 때문에 판단부위가 아니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했었다. 시각은 감각처럼 거의 무조건 맞는 선지는 아니지만 시각이 없는 시는 거의 없으므로 웬만하면 맞다. 따라서 답일 가능성이 높다.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는 판단부위가 아니다.
- ③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화자가 대상을 관찰하고 있다. - 답이 될 수 있으나 가능성이 낮은 선지.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화자인지 대상을 관찰하는지 두 가지를 판단하면 된다.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일 경우엔 답이 될 수 있겠지만,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일 경우 그 성격상 답이 될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 이 선지가 답이 되려면 1인칭표현이 없는 시와 대상을 관찰하는 시 세 개를 모아야 한다. 그런데 1인칭표현이 없다는 기준은 시 선정기준 치고는 지엽적이고, 대상을 관찰하는 시만 나오면 문제 낼 소재가 한정적이다. 그리고 공통점 문제는 출제자입장에서 볼 때 공통점을 정해놓고 시를 고르는 게 아니라 일단 시 선정을 해놓고 공통점을 문제를 낸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할 것이다. 어떤 시를 뽑든 간에 공통점 문제는 만들 수 있지만, 공통점 문제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맞는 시를 고르면 나머지 문제를 만드는 데 곤란함이 있고 원하는 시를 선정하지 못하는 문제도 생긴다. 따라서 이 선지는 답일 가능성이 낮다.
- ④ 경쾌하고 발랄한 어조를 통해 생명감을 드러내고 있다. - 답이 될 수 있으나 가능성이 낮은 선지.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에서) 선지표현 중 어조에 관한 것은, 항상 답이 될 수 있으나 가능성이 낮다. 이유는 앞 쪽에 어조에서 설명했으니 생략한다.
- ⑤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화자의 시선이 이동하고 있다. - 답이 될 수는 있으나 가능성이 낮은 선지. 시선의 이동이 두드러지는 시는 매우 적다. 따라서 이 선지가 답이 되려면 공통점을 먼저 정해놓고 시를 선정해야한다. 따라서 선지3번과 같은 이유로 답일 가능성이 낮다.

이 문제의 답은 2번.

16. <보기>와 같이 학습 과제를 수행한 후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06수능)

<보 기>

1. 이 시의 창작 시기와 배경에 대해 조사해 본다.
  - 일제 말기인 1941년에 발행된 정지용의 두 번째 시집인 『백옥담』에 실린 작품. 이 무렵 정지용은 서울에 살고 있었음.
2. 작품 제목의 의미를 알아본다.
  - 인동차(忍冬茶)는 한약재로도 쓰이는 인동의 줄기나 잎사귀를 찧려 달여 먹는 차. 인동은 인동과의 반(半) 상록 덩굴성 식물. 인동에는 ‘겨울을 참고 견디다’는 뜻이 있음.
3. 이해하기 어려운 시어를 조사한다.
  - 장벽 : 위장과 같은 내장의 벽.
  - 무시로 : 아무 때나.
4. 이 시가 갖는 표현상의 특징을 알아본다.
  - 시상 전개 : ……
  - 이미지 : ……
  - 특이한 표현 : ……

- ① 창작 시기와 제목의 의미를 고려할 때, 이 시에서는 겨울로 비유된 힘든 현실을 참고 견디려는 정신적 자세가 엿보이는 것 같아. - **답이 될 수 없는 선지. 창작 시기와 제목은 각각 일제시기와 겨울을 참고 견디다는 의미로 당연히 맞는 선지. 내용을 보지 않더라도 그냥 끼워 넣은 것을 알 수 있는 선지이다. 이런 류의 선지는 거제 주는 선지라고 한다.**
- ② ‘장벽에 / 무시로 인동 삼긴 물이 나린다.’는 구절은 ‘차를 마신다’는 평범한 사실을 낯설게 바꾸어 표현한 것 같아. - **답이 될 수 없는 선지. 마찬가지로 거제 주는 선지. 판단부위도 없다.**
- ③ ‘덩그럭 불이 / 도로 피어 붉고’라는 표현에서 실내의 분위기와 함께, 시간의 흐름을 엿볼 수 있어. - **답이 될 수 있으나 가능성이 낮은 선지. 실내가 아니거나 시간의 흐름이 안 나타남이면 되는데, 사실 이는 보기와도 관련이 없고 제시문의 주제와는 하등의 관련이 없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에서 보기를 주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시에 정보를 주는 보기, 문제를 풀기 위해 주는 보기, 그냥 주는 보기이다. 이 중 그냥 주는 보기를 제외하고 보기가 나온 문제 중에 제시문과 보기 모두와 관련이 없을 경우 답이 되지 않는다. 출제자 입장에서 보면 당연하다. 관련 없는**

걸 답으로 할 거면 보기를 안 봤을 테니까.

- ④ '책력도 없이'라는 표현으로 볼 때, 이 시의 화자는 바쁘게 살아가는 도회의 삶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 **답이 될 수 있는 선지. 화자가 도회의 삶을 그리워하는지를 판단해야하고, '책력도 없이' 라는 구절이 그 의미인지도 판단해야한다. 보통은 전자만 판단하면 된다.**
- ⑤ '하얗다'를 '하이얗다'라고 표현한 것은 언어 규범에 어긋나지만, 정감의 깊이가 더해지는 효과가 있어. - **답이 될 수 없는 선지. 아무 의미 없는 거저 주는 선지이다.**

**답이 될 수 있는 게 4번 밖에 없으므로 답 4번.**

19. (다)의 특징을 빌려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려고 한다. 창작 구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06수능)

- ② 냉소적 어조로 대상과의 거리감을 드러낸다.

**이 문제는 답이 2번이다. 아까는 어조문제는 답이 될 수는 있지만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했으니 의문이 생길 것이다. 하지만 거기에는 전제가 있었다. '공통점 문제에서 적절한 것을 물을 때'라는 조건이다. 이 문제처럼 공통점 문제가 아닐 경우에는 적절하든 아니든 어조표현이 들어간 선지가 충분히 답이 될 수 있다.**

28. <보기>를 통해 (다)의 화자의 심리를 미루어 짐작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06수능)

—<보 기>—

현대인이 신경증을 앓는 까닭은 자신이 만들어 낸 바로 그 문명 때문일 것이다.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는 욕망의 창고에는 오히려 빈 구석만 더욱 늘어 간다. 그리고 그 빈 구석을 메우고 타오르는 것은 울화의 불길이다.

**보기를 통해 문제를 풀라고 하는 문제는 보기에서 잡소리를 걸러내고 필요한 부분만 뽑아내는 게 필요하다. 보기에서 필요한 부분은 문명, 욕망, 울화 이렇게 세 가지다.**

- ① 도시적 삶(문명)이 주는 화려함에 이끌려 헤매는 마음이 드러나 있다.  
② 전통적 가치가 배척되는 근대 사회(문명)를 보고 비애감(울화)을 느끼고 있다.  
③ 식민지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전망을 상실하고 절망감(울화)에 빠져 있다.

- ④ 도시 문명(문명)에서 도피하여 전원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충동을 느끼고 있다.
- ⑤ 물질적 가치(욕망)가 중시되는 도시 문명(문명)에 대한 불만과 피로감(울화)이 쌓여 있다.

세 가지 모두 충족되는 것은 5번.

(이 책의 흐름과는 별 상관없는 선지지만, 여기저기 잘 나오는 유형이라 다뤄봄)

13.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07. 6월)

- ① 인간과 자연의 대비를 통해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답이 될 수 있는 선지. 인간과 자연이 대비돼있는지 판단하면 된다. 주제 의식 부각은 판단부위가 아니다.
- ② 화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대응 방식이 드러나 있다. - 답이 될 수 있는 선지. 대응 방식이 나와 있는지 판단하면 된다.
- ③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제시되어 있다. - 답이 될 수 있지만 가능성이 낮은 선지. 전망이 나와 있는 시는 많지 않고 게다가 낙관적 전망이 나온 시는 더더욱 드물다.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의 답이 될 가능성이 낮다.
- ④ 바람직한 세계에 대한 확신을 그리고 있다. - 답이 될 수 있지만 가능성이 낮은 선지. 이유는 선지3번과 같다. 또 이 선지는 선지자체도 명확하지 않아서 답이 되기엔 부족하다. 바람직한 세계에 대한 확신이라면, 바람직한 세계가 어떤 것이라는 확신인지 바람직한 세계가 올 것이라는 확신인지 혼동의 여지가 있는 선지이다.
- ⑤ 상황에 대한 우회적 비판이 나타나 있다. - 답이 될 수 있지만 가능성이 낮은 선지. 이유는 선지3번과 같다. 우회적이라는 것은 직접 말하지 않고 비유 따위의 방식을 써서 돌려말하는 것이다.

이 문제의 답은 2번.

14. [A]와 [B]에 나타나 있는 시간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07. 6월)

- ① [A]에서는 시간이 감각적인 이미지로 표현되어 있다. - 답이 될 수 없는 선지. 판단부위가 없다. 굳이 판단하자면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는지 감각이 있는지 살펴보면 된다.

15. (나)의 ‘하늘’과 (다)의 ‘미타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07. 6월)

- ① ‘하늘’과 ‘미타찰’은 화자가 몸을 담고 있는 공간이다.
- ② ‘하늘’은 숭고함을, ‘미타찰’은 비장함을 자아내는 공간이다.
- ③ ‘하늘’과 ‘미타찰’은 화자에게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이다.
- ④ ‘하늘’은 화자의 반성을, ‘미타찰’은 화자의 지향을 함축하는 공간이다.
- ⑤ ‘하늘’은 자연의 영원성을, ‘미타찰’은 인간의 유한성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시어의 의미를 묻고 있는 문제인데, 선지4번과 5번만 내용과 관련이 있고 나머지는 지엽적인 정보를 묻거나 시어가 가져오는 효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출제자는 시어가 내용상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할 것이므로 답은 4번과 5번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 문제의 답은 4번.

17.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07. 6월)

- ① 문장을 도치시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음절의 수를 조절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 ③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④ 색채어를 통해/ 작품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⑤ 토속적인 방언을 사용하여/ 향토적 정감을 환기하고 있다.

이 문제의 5개의 선지들은 모두 판단부위가 있어 답이 될 수 있는 선지다. 판단부위는 모두 ‘/표시의 앞 쪽만 판단부위에 해당하고 뒤에는 판단부위가 아니다. ‘향토적’이라는 표현은 원래는 판단부위이지만 선지5번에서는 방언을 쓰면 무조건 향토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향토적’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

13.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07. 9월)

- ① 화자의 체험을 우의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답이 될 수 있는 선지. 화자의 체험이 있는지, 우의적으로 형상화하였는지 판단하면 된다. 실전에서는 이렇게 판단부위가 두 개 이상인 경우는 둘 중에 판단하기 쉬운 선지를 골라 하나만 판단하면 된다. 왜냐하면 하나만 판단해도 선지5번까지 내려가면 답이 결정되는 문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 ② 장면을 초점화하여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답이 될 수 있는 선지. 장면을 초점화하였는지만 판단하면 된다. 뒷부분은 판단부위가 아니다.
- ③ 담담한 어조로 대상과의 합일을 지향하고 있다. - 답이 될 수 있는 선지. 어조문 제지만 제시문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선지내용을 살펴 보면 사실 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 왜냐면 대상과의 합일을 지향하는 시는 현대시에서 많지 않고 주로 고전에서 자연예찬을 하면서 물아일체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런데 그런 시는 감탄사나 감탄어미가 많이 나와서 담담한 어조가 아닌 경우가 대다수이다.
- ④ 자신을 대상화하여 현실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 - 답이 될 수 있는 선지.
- ⑤ 회상하는 방식으로 삶의 애환을 그려 내고 있다. - 답이 될 수 있는 선지. 삶의 애환은 판단부위지만 굳이 판단할 필요가 없다. 이게 답이려면 명확하게 애환에 해당하는 시가 출제됐을 것이므로.

이 문제의 답은 2번.

15.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07. 9월)

- ① 노인의 삶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 느껴져. - 답이 될 수 없는 선지. 거저 주는 선지.
- ② 외딴집의 정경을 통해 노인의 고독을 드러내고 있어. - 답이 될 수 없는 선지. 거저 주는 선지. 외딴집과 고독은 같은 말이다. 이게 답이 되려면 노인과 외딴집이 상관없는 공간이면 된다.
- ③ 목가적 분위기를 대화적 구성을 통해 보여 주고 있어. - 답이 될 수 있는 선지. 목가적 분위기는 이 때 처음 나왔으니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당황할 필요 없이 대화적 구성인지 아닌지 판단하면 된다. 출제자가 목가적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출제하면서 극소수만 알고 있을 것을 알고 있었을텐데 이 구절의 정오판단을 요구하진 않았을 것이다. 만약 이 용어가 틀려서 답으로 만들려면 나머지 선지를 명확하게 하여 답을 찾게 했을 것이다. 실제로 이 문제의 답은 3번인데, 대화적 구성이 틀려서 명확하게 답을 찾을 수 있게 해놓았다. 목가적이라는 용어의 정오를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 ④ 시상이 집약된 시어로 끝맺으면서 여운을 남기고 있어. - 답이 될 수 있는 선지. 이 선지는 '명사로 시를 끝맺고 있다.'와 같은 의미이다. 이게 답이 되려면 시 끝이 명사가 아니면 된다.
- ⑤ 시어의 반복과 연쇄로 산문적 진술에 리듬감을 주고 있어. - 답이 될 수 있는 선

지. 반복과 연쇄가 있는지 판단하면 된다. 리듬감은 판단 부위가 아니다.

선지1,2번은 내용을 묻고 있는데 거저 주는 선지의 형태를 띠고 있고, 선지3,4,5번은 표현을 묻는 선지로 답이 될 수는 선지다.

이 문제의 답은 3번.

16.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07. 9월)

- ① [A], [B]는 모두 자연물을 통해 정서를 환기한다. - 답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선지. 적절한 것을 묻는 선지인데 판단부위가 없다. 사실상 답이라고 바로 알 수 있는 선지이다. 자연물은 판단부위이긴 하지만 자연물이 안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맞다. '정서를 환기한다.'는 판단부위가 아니지만 'A와 달리 B는' 이런 식의 표현이 같이 있다면 판단부위이다. 왜냐면 이 때는 문제를 만들기 위해 시의 흐름과 관련 없는 자연물 부분을 골라 설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 ② [A], [B]는 모두 화자가 처한 무력한 현실을 상징한다. - 답이 될 수 있는 선지.
- ③ [A], [B]에서는 모두 관조적 태도가 나타난다. - 답이 될 수 있는 선지.
- ④ [A]는 [B]에 비해 공간의 대비가 두드러진다. - 답이 될 수 있는 선지.
- ⑤ [B]는 [A]에 비해 시적 상황을 압축적으로 표현한다. - 답이 될 수 있으나 가능성이 낮은 선지. '압축적으로 표현한다.'는 표현은 둘 중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압축적이거나 반대쪽은 다 풀어서 설명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비교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의 답은 1번.

28.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07수능)

- ① (가)와 (나)에는 현재 처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 답이 될 수 있는 선지. 현재 상황인지(현재형 어미),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 판단하면 된다. 여기서 긍정적인 인식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과 '부정적 상황임에도 헤쳐나가겠다.'는 다른 선지이다. 왜냐면 후자의 경우는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헤쳐나가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고, 전자는 의지나 행동방향보다는 인식자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다.
- ② (가)와 (다)에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해소된 조화로운 상태가 구현되어 있다. - 답이 될 수 있는 선지. 여기서 조화로운 상태라는 것은 딱히 판단할 필요가 없다.

조화로운 상태 =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없는 상태 로 이해하면 되기 때문이다.

- ③ (나)와 (다)에는 일상생활의 소중함에 대한 자각이 나타나 있다. - 답이 될 수 있는 선지. 일상생활인지, 또 그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판단하면 된다. 이런 식의 선지의 경우 출제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히 '소중한가 아닌가' 이렇게 이 말 자체를 가지고 판단하려면 헛갈리기 십상이다. 출제자가 저런 새로운 용어를 썼을 때, 용어를 만들어놓고 시를 고른 게 아니라 시를 보고 특정 어휘를 선택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니까 시에서 자신의 생활이 행복하다거나 즐겁다거나 좋다거나 하는 내용이면 맞다고 볼 수 있다.
- ④ (가), (나), (다)에는 자연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이 바탕에 깔려 있다. - 답이 될 수 있는 선지. 이 것도 새로운 용어이므로 선지3번과 같은 마인드로 접근해야한다. 자연의 섭리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자연이 돌아가는 이치, 봄에 꽃피고 여름에 덥고 파도가 오르면 다시 내려가고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내용이 있으면 맞는 선지라고 볼 수 있다.
- ⑤ (가), (나), (다)에는 화자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삶의 자세가 담겨 있다. - 답이 될 수 있는 선지. 이 것도 선지3번과 같은 마인드로 접근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어가 아닌 다른 용어로 선지를 만들었을 때 항상 출제자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뭘 묻고자 하는지 이해하고 자신만의 언어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다.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삶의 자세가 있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어떻게 살고 싶다.' 라는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문제의 답은 5번.

29. (가)와 (나)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표현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07수능)

- ① 비유와 상징을 통해 시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 답이 될 수 있는 선지. 시상을 구체화한다는 구절은 판단부위가 아니다. 비유와 상징은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맞는 선지가 된다. 개념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필자의 다른 저서 '수능시 그 대로 읽어라!' 참고)
- ② 어조의 변화를 통해 시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 - 답이 될 수 있지만 가능성이 낮은 선지. 어조의 변화가 나타나는 시는 많지 않다. 시적 긴장을 높인다는 구절은 판단부위가 아니다.
- ③ 동일한 색채어를 반복하여 정서를 고조시키고 있다. - 답이 될 수 있는 선지. 같은 색깔이 두 번 이상 나왔는지 판단하면 된다. 정서를 고조시킨다는 판단부위가 아

니다.

- ④ 공감각적 표현으로 이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 **답이 될 수 있는 선지.**  
**이미지를 선명하게 드러낸다는 판단부위가 아니다.**
- ⑤ 화자의 시선이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 - **답이 될 수 있지만 가능성이 낮은 선지.** 앞서 설명했지만 시선의 이동이 두드러지는 시는 많지 않으므로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의 답이 되기 어렵다.

**이 문제의 답은 1번.**

30. <보기>는 (가)에 대한 심화 학습을 위하여 수집한 자료이다. 이를 참고하여 토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07수능)

<보 기>

**【백과사전】**

**이육사:** 시인. 1904년 경상북도 안동 출생. 항일 독립 투쟁으로 20여 차례의 투옥 끝에 베이징 감옥에서 옥사함.  
· 작품 경향: 저항 의식, 실향 의식과 비애, 초인 의지와 조국 광복에 대한 열망 등을 주제로 삼고 있음. 정제된 형식미와 안정된 운율감을 보임.  
· 「교목」: 1940년 『인문평론』 7월호에 발표.

**【국어사전】**

**교목:** 줄기가 곧고 굵으며 높게 자라는 큰 나무.

**【인터넷 자료】**

· 『맹자』에 따르면, ‘교목’은 오랜 세월 덕을 닦아 임금을 도(道)로써 보필하여 나라를 떠받치는 신하를 의미한다.  
· 시인은 빈궁과 투옥과 유랑의 사십 평생에 거의 하루도 평온한 날이 없었다. 문학청년은 아니었으나 삼십 고개를 넘어 시를 쓰기 시작했고, 혁명적 열정과 의욕을 시에 의탁해 꿈도 그려 보고 불평도 터뜨렸던 것이다. (『육사 시집』 발문)

- ① 이 시의 제목은 나라를 위한 시인의 절개와 기상을 표상한 것이다. - **답이 될 수 없는 선지. 거저 주는 선지.**
- ② 이 시의 행 배열과 연 구성에서도 이육사 시의 형식적 특성을 찾을 수 있다. - **답**

이 될 수 없는 선지. 거저 주는 선지.

- ③ ‘낯은 거미집’은 시인의 고난에 찬 삶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 답이 될 수 있는 선지. 낯은 거미집이 나오는 구절이 시인의 모습과 관련이 있으면 맞다.
- ④ ‘끝없는 꿈길’은 시인의 혁명적 열정과 의욕을 함축하고 있다. - 답이 될 수 있는 선지. 시어의 의미를 묻는 선지이다.
- ⑤ ‘바람’은 이국을 떠돌던 시인의 실향 의식과 저항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 답이 될 수 있는 선지. 바람이라는 시어의 의미를 묻는 문제다.

이 문제는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범위의 해석을 허용하여 선지를 구성하는 문제이다. 이런 유형은 적절하지 않는 것을 묻는 게 일반적인데 이 문제를 출제하는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틀린 것을 고르라고 내는 문제이지, 나머지 것들이 맞나 확인하려고 내는 문제가 아니다. 이를 알면 거저 주는 선지가 왜 생기는지, 어떤 게 거저 주는 선지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시의 제목은 일단 교목이고 교목은 곳곳한 기상을 상징하고 일제시대가 배경인 것으로 보아, 주제가 일제시대를 이겨내는 의지 정도로 볼 수 있다. 거저 주는 선지는 특별히 묻는 게 없는 선지로 ‘음 그럴만해’ 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선지이다. 선지 3,4,5번은 셋 다 시어의 의미를 그대로 읽기를 통해 파악하여 보기를 통해 확장해석한 선지인데, 시의 주제만 파악해도 3, 4번은 거저 주는 선지라는 걸 알 수 있다. 반면에 선지 5번은 이국을 떠돌다는 내용이 있어야하므로 답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부연 설명을 하겠다. 제시문에 나오는 ‘호수 속 깊이 거꾸러지면 바람도 흔들진 못해라.’ 라는 구절에서 ‘바람’의 의미를 그대로 읽기를 통해 파악해보면 ‘거꾸러지면 나를 흔들지 못하는 대상’ 바꿔 말하면 ‘나를 원래 흔들던 대상’이다. 그런데 배경이 일제시대이므로 나를 힘들게 하는 일제, 혹은 그 내가 처한 힘든 상황 정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답이 5번이 된다. 여기서 학생들이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대상이 항상 외부에서 온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보기에 외부 대상만 언급되어 있고 나약한 자신의 모습이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바람이 일제에 해당하지만, 만약 운동주가 썼더라면 완전히 다른 해석도 가능해진다. 운동주가 썼을 경우 보기에는 분명 ‘실천하지 못하는 나약한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바람이 일제라기보다는 나약한 의지에 해당할 것이다. 운동주의 경우 자신이 실천하지 못하게 흔들는 것은 일제라는 대상이 아니라 나약한 자신이므로.

31. <보기>는 (나)와 (다)를 자료로 한 수업의 일부이다. 학생들의 의견 가운데 적절하지 않은 것은? (07수능)

<보 기>

선생님 : (나)와 (다)의 기본적인 짜임새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어요.

(나)

|      |      |      |
|------|------|------|
| 1~2연 | 3~4연 | 5~6연 |
| A    | B    | C    |

(다)

|    |      |      |
|----|------|------|
| 1연 | 2~3연 | 4~6연 |
| A  | B    | C    |

이제 두 시를 자세히 읽고, 시상의 전개에 대해 의견을 말해 볼까요?

- ① (나)에서 A의 두 연은 ‘하늘’, B의 두 연은 ‘지구’, C의 두 연은 ‘푸른 별’이라는 시어를 통해 각각 결합되고 있어요. - **거저 주는 선지. 결합되고 있다는 말은 그냥 ‘있다’와 같은 말이다. 이 선지는 ‘A에는 하늘이, B에는 지구가, C에는 푸른 별이 나와 있다.’로 바꿀 수 있다. 보자마자 확인할 필요 없이 스킵하면 된다.**
- ② (나)는 A에서 ‘하늘로 팔을 드러내는’ 숭고함을, B에서 ‘땅을 디디고 선’ 기쁨을 그리는데, 이것들이 C의 ‘저문 들길에 서서 푸른 별을 보는’ 거룩함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 **거저 주는 선지. 연결되고 있다는 말도 그냥 ‘있다’와 같은 말이다. 선지 1번과 같은 이유로 스킵하면 된다.**
- ③ (나)는 (다)와 달리 A의 내용이 B에서 응축되고, B의 내용이 C에서 더 응축되고 있어요. A에서 C로 갈수록 묘사의 범위가 좁아지면서 의미가 심화되는 것이 특징이에요. - **답이 될 수 있는 선지. ‘묘사의 범위가 좁아진다’ 이 부분만 판단부위이다.**
- ④ (다)의 A, B, C는 모두 ‘기다려야만 한다’는 말로 끝나고, ‘겨울’이라는 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지요. 반복이 이 시의 특징이에요. - **거저 주는 선지. ‘(다)의 ~ 나타나지요.’ 이 부분은 판단부위가 아니라 시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확인해주는 것이다. 공통적으로 나타났다는 말이 반복이므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 ⑤ (다)는 (나)와 달리 A는 한 연, B는 두 연, C는 세 연으로 늘어나요. 그러면서 B와 C는 A의 시상을 상세화하고 있어요. - **답이 될 수 있지만 가능성이 낮은 선지. ‘시상을 상세화한다.’가 판단부위인데 시상을 상세화한다는 것은 부연설명을 하여 더 구체적으로 드러낸다는 것이다.**

이 문제의 답은 3번.

32. (다)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07수능)

- ① ‘열은 화장’은 산봉우리에 눈이 살짝 쌓인 모습을 나타낸 것이야. 산의 미묘한 변화에 주목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
- ② ‘차가운 수목’은 겨울 산의 모습을 그림에 비유한 거야. 대상의 속성이 드러날 수 있는 정황을 묘사하고 있어.
- ③ ‘신록’, ‘단풍’, ‘안개’는 겨울이 아닐 때의 산의 모습을 나타내. 이들과의 대비를 통해 겨울 산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어.
- ④ ‘윈 산을 뒤덮는 적설’은 가볍게 눈에 덮여 있는 상태와 호응하지. 세속적인 것에서 벗어나 홀로 존재하는 산봉우리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어.
- ⑤ ‘장밋빛 햇살’은 가볍게 눈 덮인 산봉우리의 속성을 ‘변질’시키지. 그럼으로써 화자가 형상화한 산봉우리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해.

이 문제는 선지가 두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부분만 판단부위이고 뒷부분은 판단부위가 아니다.

51.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07수능)

- ① 상황이 개선되리라는 기대가 나타나 있다.
- ② 대상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
- ③ 작품의 바탕에 절대자에 대한 믿음이 깔려 있다.
- ④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 ⑤ 일상적 소재를 위주로 하여 삶에 대한 성찰을 보여 주고 있다.

이 문제의 선지들은 모두 답이 될 수 있는 선지이다. 그런데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이므로 가장 일반적인 것이 답일 가능성이 높다. 선지2번 같은 경우는 그리움이 판단부위인데, 상당히 많은 시들이 그리움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답일 가능성이 높다. 반면 선지3,4번의 경우는 시 3개 모두가 일치하기 어려운 선지표현들이므로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선지5번의 일상적 소재라는 판단부위도 맞을 가능성이 높은 선지표현들 중 하나이다.

이 문제의 답 2번.

52. (가)와 (나)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07수능)

- ① 계절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답이 될 수 있는 선지. 계절감이 판단부위이다.**
- ② 감정을 절제한 표현으로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 **답이 될 수 있지만 가능성이 낮은 선지. '감정을 절제한 표현'이 판단부위인데 이는 대개 어조로 파악하고, 어조문제는 앞서 말했듯이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의 답이 되기 어렵다.**
- ③ 점층적 강조를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답이 될 수 있는 선지. 점층이 판단부위이다.**
- ④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답이 될 수 있는 선지. '동일한 시어 반복'이 판단부위.**
- ⑤ 단호한 어조로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답이 될 수 있지만 가능성이 낮은 선지. 선지2번과 같은 이유.**

**이 문제의 답은 1번.**

56. (다)의 '질화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07수능)

- ① 글 전체에 통일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②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물이다.
- ③ 가난을 환기하는 소재로 설정되어 있다.
- ④ 정감이 넘치는 풍경을 연상시키고 있다.
- ⑤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와 결합되어 있다.

**이 문제의 선지들은 선지2,3번을 제외하고 답이 될 수 없는 선지들이다.**

**선지1번에서 통일감을 부여한다는 의미는 여러 번 나온다는 의미 혹은 화제가 질화로라는 의미이다. 이게 틀리려면 질화로가 글 전체내용과는 별 상관이 없어야하는데 56번 문제자체가 질화로에 대한 것을 묻고 있으므로 질화로가 글 내용에서 핵심이 됨을 알 수 있다.**

**선지4번이 답이려면 정감이 느껴지지 않는 명확한 풍경이면 된다. 살벌하거나 도시의 차가운 느낌이면 답이 되는데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꼭 본문을 보지 않더라도 유치원생도 읽기만 하면 살벌한 느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지 않을 것이다.**

선지5번은 '다양한 감각'이 판단부위인데 이걸 거의 무조건 맞다고 보면 된다. 1,4,5 같은 종류의 선지들은 굳이 일일이 확인하지 말고 일단 스킵하고 남은 것들 중에서 답이 안 나오면 확인하면 된다.

20.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08. 6월)

- ① 반어적 표현을 구사하여 주제를 부각시킨다. - 답이 될 수 있는 선지. 반어가 판단부위.
- ② 시간의 변화가 시상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답이 될 수 있는 선지. 시간의 변화가 판단부위. 시간의 변화와 계절의 변화는 다른 것이다.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제시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도 이걸 시간의 변화에 해당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시가 진행되는 동안에 겨울에서 봄으로의 이동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봄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③ 부정적 현실을 포용하려는 여유로운 정신이 엿보인다. - 답이 될 수 있는 선지. 부정적 현실과 그것을 포용하는 정신이 판단부위. 그렇지만 이렇게 판단부위가 두 개 이상일 때는 일단 하나만 먼저 해도 무방하다.
- ④ 대화체를 사용하여 독자를 시 속으로 깊숙이 끌어들인다. - 답이 될 수 있는 선지. 대화체만 판단부위.
- ⑤ 화자와 대상의 거리를 좁혀 자연 친화적 태도를 드러낸다. - 답이 될 수 있는 선지. 자연 친화적 태도만 판단부위. 화자와 대상과의 거리는 옛날에 자주 나왔던 유형이고, 최근엔 잘 나오지도 않지만 나와도 이걸로 정오를 가르진 않는다.

이 문제의 답은 2번.

21. (가)와 (나)를 비교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08. 6월)

- ① (가)는 사람이, (나)는 자연물이 시상을 유발한다. - 답이 될 수 있는 선지. 자연물은 일반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지만 이 문제에서는 사람인지, 자연물인지 구분하고 있으므로 판단해야 한다.
- ② (가)는 (나)에 비해 내면을 성찰하는 태도가 잘 드러난다. - 답이 될 수 있는 선지. 내면 성찰이 '더' 잘 드러난 시를 묻고 있는데 판단하기가 애매하다. 따라서 이 선지의 판단은 내면성찰이 있고 없고로 따져야지 어떤 게 더 성찰이 많은가로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된다. 둘 다 내면성찰이 없거나 둘 다 내면성찰이 있다면 틀린 선지

로 이 문제의 답이 될 수 있다.

- ③ (나)는 (가)에 비해 간접적으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답이 될 수 있는 선지. 이것도 선지2번과 같은 유형이다. 두 개의 시를 비교할 때는 애매한 부분으로 그 정도를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확실하게 있고 없고로 따지는 게 맞다. 이 선지가 맞으려면 (나)는 정서를 직접 드러낸 부분이 없고, (가)는 있으면 된다.
- ④ (나)는 (가)에 비해 친근한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 - 답이 될 수 있는 선지. 친근한 어조란 대화체를 의미한다. 이것도 선지2번과 같은 유형.
- ⑤ (가)와 (나)는 비유적으로 인물을 표현하고 있다. - 답이 될 수 있는 선지.

이 문제의 답은 2번.

22.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08. 6월)

- ① ‘외풍’은 아버지의 사랑을 대비적으로 부각시키는 소재이다. - ‘외풍’이 나를 힘들게 하는 대상인지 판단하면 된다.
- ② ‘이승의 물로 화신’에는 삶에 대한 윤희론적 인식이 엿보인다. - 다시 태어났다는 게 있으면 맞다.
- ③ ‘여린 물살’은 아버지의 보호를 받는 자식을 형상화한 것이다. - 2번선지로 추측하건대 아버지로 해당하는 것이 이승의 물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승의 물이 여린 물살을 보호하고 있다면 맞는 선지다.
- ④ ‘얼어붙은 잔등’은 화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 사건을 추측하게 한다. - 이 선지가 07. 9월에 시행된 평가원 모의고사에 나온 선지랑 똑같은 종류의 선지이다. 07. 9월에 나온 선지는 다음과 같다. <‘있는 대로’의 울음은 ‘아버지’의 생명을 위태롭게 했던 것에 대한 ‘우리’의 회한과 반성일 수 있겠군.> ‘얼어붙은 잔’등과 ‘있는 대로’의 울음의 원인을 원래의 것과 다르게 바꾸어 틀린 선지로 바꾸어놓은 것이다. 기출을 제대로 분석한 사람은 07. 9월의 선지를 토대로 이 선지의 트릭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 ⑤ ‘얼음’은 일반적인 속성과는 달리 따뜻함이 투영된 이미지이다. - 선지들로 판단하건대 얼음이 아버지의 사랑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사랑과 따뜻함은 통념으로 보건대 관련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맞는 선지일 것이다.

5개의 선지 모두 답이 될 수 있는 선지입니다. 이 문제의 답은 4번.

28.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08. 9월)

- ① 자연의 실상에 어울리는 다양한 색채어를 사용하고 있다. - **답이 될 수 있지만 가능성이 높지 않은 선지.** 색채어가 세 개 이상 나오면 답이다. 세 시 모두 색채어가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각각의 시마다 세 개 이상의 색채어가 나올 확률은 낮다. 실전에서는 색채어가 다양한지를 살피기 전에 색채어가 있는지 없는지만 일단 확인하는 게 좋다.
- ② 의인화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 **답이 될 수 있는 선지.** 사람이 아닌 대상을 청자로 설정하면 맞는 선지다.
- ③ 정형적인 운율을 살려 시적 안정감을 확보하고 있다. - **답이 될 수 있는 선지.** 3음보나 4음보 같은 음보율을 사용했는지 판단하면 된다. 시적 안정감은 판단부위기 아니다.
- ④ 명암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답이 될 수 있는 선지.** 명암의 대비가 판단부위.
- ⑤ 유장한 어조로 경건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답이 될 수 있지만 가능성이 낮은 선지.** '유장한'이라는 용어는 이 때 처음 나온 용어이다. 이 용어의 뜻을 알고 있는 수험생은 극히 드물다. 필자도 이 단어를 몰랐고, 내 과외경험으로도 이 단어의 뜻을 알고 있는 학생은 한명도 없었다. 일상생활에서도 거의 안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이다. 이게 답이 되려면 유장한 어조가 맞다고 판단해야 하는데, 그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판단할 수가 없다. 출제자 입장에서 대다수가 모르는 용어를 판단하게 하는 문제는 내지 않을 것이므로 답일 가능성이 낮다. '유장한'이라는 용어를 판단하게 하여 선지5번이 답이 된다면, 이건 어휘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경건한 분위기도 판단부위이다. 그렇지만 판단하기 애매하기 때문에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만 맞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 문제의 답은 2번.

29. (가)와 (다)의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08. 9월)

|   | (가)  | (다)  | 시어의 의미와 기능          |
|---|------|------|---------------------|
| ① | 바닷가  | 조대   | 화자가 현재 머무는 장소       |
| ② | 산새   | 은린옥척 | 화자의 지향에서 벗어나 있는 대상  |
| ③ | 개벽   | 성세   | 화자의 처지가 변화하는 계기     |
| ④ | 물낫바닥 | 그림자  | 화자가 수행하는 자기 성찰의 매개물 |
| ⑤ | 아이   | 벗님   | 화자가 부러워하는 대상        |

이 선지들은 모두 답이 될 수 있는 선지이다. 이 문제의 답은 2번.

이 문제는 오답률이 상당히 높았다.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화자의 지향에서 벗어나 있다'는 말을 이분법으로 긍정, 부정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그런 것 같다. 화자의 지향에서 벗어나 있다고 해서 화자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싫어하는 것은 아니다. 꼭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지향하는 것에 포함되지 않으면 해당되는 것이다.

30. (나)와 (다)의 시상 전개 방식을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08. 9월)

- ① (나)와 (다) 모두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며 시상을 전개한다. - '설의'가 판단부위, '시상을 전개한다'는 앞에서 살펴봤듯이 아무 의미 없는 표현이다.
- ② (나)와 (다) 모두 계절의 변화를 축으로 삼아 시상을 전개한다. -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게 구체적으로 혹은 명시적으로 시에 나와 있어야 맞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란 의미는 계절이 변화하면서 일어나는 일을 직접 서술한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따사로운 햇살에 눈이 녹아' 이런 구절이 여기에 해당한다. 명시적이라는 의미는 이제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 이런 구절을 의미한다.
- ③ (나)는 (다)와 달리 여러 대상으로 관심을 옮겨 가며 시상을 전개한다. - 화자가 서술하고 있는 대상이 변화하는지를 살펴보면 된다.
- ④ (나)는 시각적 이미지를, (다)는 청각적 이미지를 위주로 시상을 전개한다. - 'A가 감각적이다' 라는 선지를 판단할 때는 자연물은 모두 시각적 이미지에 포함시켜 감각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시각적 이미지를 위주로 한다고 물어봤을 때, 특히 이 선지처럼 누가 더 그런지를 물어봤을 때는 시각적 이미지는 자연물 전체가 아니라 정말 시각적인 대상으로 제한된다. 빛이 나거나, 색깔이 도드라지거나 하는 것들, 색채어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수능시 그대로 읽어라!를 본 사람은 이 설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책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아래 설명으로 받아들인다. 그 책을 공부한 사람도 아래처럼 이해해도 무방하지만, 그 책과 내용이 좀 상이하므로 위의 설명을 참고하자. 그 책에서 그렇게 설명한 이유는 '자연물이 그냥 감각적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 그 설명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사실 실전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해하든 결과는 아래와 같으므로 굳이 연연할 필요는 없다.)  
자연물은 감각적 이미지다. 시각적 이미지는 빛이 나거나, 색깔이 도드라지는 것, 색채어 같은 것들이다.
- ⑤ (나)는 시적 화자의 심리 묘사를, (다)는 외부 대상 묘사를 위주로 시상을 전개한다. - 이 선지를 판단할 때 학생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심리 묘사인지 대상 묘사인지 아리까리하기 때문이다. 시에서 대상이 나오더라도 대상과 심리가 섞여 나온다. 따라서 이 시는 명확하지 않으면 아니라고 판단하면 된다.

이 문제의 답은 1번.

31. 시인이 <보기>의 옛 기록을 바탕으로 (가)를 썼다고 할 때, 창작 과정을 추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08. 9월)

—<보 기>—

경주 선도산(仙桃山)에 신모(神母)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사소’라 했다. 일찍이 신선술을 터득하여 멀리 바다 건너 서쪽 나라로부터 해동(海東)으로 들어왔다. 솔개가 날아가 내리는 곳에 집을 지으라는 계시를 받고서 선도산에 정착하여 신선이 되었다. 사소가 처음 삼한 땅에 이르러 자식을 낳으니, 그가 동국(東國)의 첫 왕이 되었다. 무릇 혁거세와 알영의 유래를 말하는 것이리라.

- ① ‘사소’의 내적 갈등에 초점을 맞추어 <보기>를 새롭게 해석했군. - **답이 될 수 없는 선지. 거저 주는 선지 유형이다.**
- ② <보기>에 없는 ‘노래’와 ‘구름’ 같은 시어로 바다 건너 고향을 그리는 ‘사소’의 심정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어. - **답이 될 수 있는 선지. 시에서 노래와 구름이 바다 건너 고향을 그리워하는 내용과 관련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시에 없다면 보기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 ③ ‘꽃’은 시적 주제를 부각하기 위해 <보기> 밖에서 가져온 소재야. - **답이 될 수 없는 선지. 거저 주는 선지 유형.**
- ④ <보기>와 달리 ‘사소’가 ‘처녀로 잉태’했다고 한 것은 ‘사소’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기 위한 설정이야. - **답이 될 수 없는 선지. 거저 주는 선지 유형. 처녀로 잉태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므로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 ⑤ <보기>를 근거로 원주를 붙인 데에는 원주를 참조하여 시를 이해하기 바라는 시인의 의도가 담겨 있어. - **답이 될 수 없는 선지. 거저 주는 선지 유형. 뭔가 추가 정보가 있으면 당연히 참고하라고 준 것이다.**

답이 될 수 있는 선지가 2번뿐이므로 답 2번. 이 문제는 선지만 보고 풀 수 있음에도 오답률이 58%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오답률이 높은 문제도 선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만으로 답을 고를 수 있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문제다.

32. (나)의 시적 화자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08. 9월)

- ①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를 경계하고 있다. - ‘낙관적 기대’와 그에 대한 ‘경계’가 판단부위이다. 실전에서는 일단 낙관적 기대가 있는지부터 판단하면 된다.
- ② 작은 존재들의 연대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 ‘작은 존재들’과 ‘연대’와 그에 대한 ‘믿음’이 판단부위이다. 출제자가 작은 존재라는 용어를 선택했을 때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작은 존재라면 실제로 작은 존재만을 애기한 것이 아니라 나약한 존재라는 의미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했을 것이다. 연대라는 것은 서로 협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연대에 대한 믿음은 서로 협력하여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 혹은 서로 협력할 수 있다는 믿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믿음이라고 해서 꼭 명시적으로 나와야하는 것은 아니며, 화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 ③ 시련을 극복한 대상을 격려하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 시련을 극복하였는지, 그 대상을 격려하는지 판단하면 된다. 이 선지가 학생들이 많이 정답으로 선택하였는데 오답이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은 이 선지가 틀린 이유를 시련을 극복한 대상을 ‘격려’하는 것까지는 아닌가보다 하면서 엉뚱한 분석을 하고 있다. 이 선지가 오답인 이유는 시련을 ‘극복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시제를 바꾸어 오답선지를 만든 경우로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가게 만드는 선지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선지 전체적인 내용은 맞기 때문이다. (나)시는 시련을 ‘극복해야할’ 대상을 격려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선지를 답으로 선택할 여지가 크다. 출제자가 격려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때 (나)시에서 화자가 나무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보고 사용했을 것이다. ‘격려’라는 부분은 선지2번에 있는 ‘연대에 대한 믿음’과 별반 다르지 않은 용어이다. 출제자는 비슷한 의미의 용어를 다르게 사용하여 판단부위에 대한 학생들의 초점을 흐트려서 오답을 만든 거라고 볼 수 있다. 간단하게 도식화 하면 선지2번은 A / C 형태이고, 선지3번은 B / C' 형태이다. 학생들이 판단해야 할 부위는 B인데 선지3번을 선지2번과 내용을 유사하게 구성하여 둘 중에 대충 찍게 만드는 트릭이 숨어있다. 따라서 이런 트릭을 쓰는 문제를 볼 때, 선지 두 개가 내용상 상당히 유사하다면 그 내용의 정오를 판단하지 말고 다른 판단부위를 놓치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한다.
- ④ 과거의 고난 체험에 대한 관조적 심정을 보여주고 있다. - ‘과거’인지 ‘고난 체험’이 있는지 ‘관조적’인지 판단해야 한다. 이 선지에서 유의할 점은 단순히 고난이 언급되어있는지 체험한 고난인지를 분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앞으로 다가올 비바람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이런 식의 선지는 고난은 언급되어 있지만 고난체험은 아니다.
- ⑤ 약자들에게 외부의 도움에 대한 열린 자세를 권고하고 있다. - 선지2번에서

작은 존재들을 여기에선 약자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문제의 선지들을 보고 같은 부분에 대해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해야한다.

이 문제의 답은 2번.

13.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08수능)

- ① (가), (나)에서 화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부터 도피하고자 한다. - 다른 곳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나타나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 ② (가), (다)에는 미래에 대한 화자의 확신이 나타나 있다. - 이 선지는 여러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지문을 보고나서 출제자가 어떤 의미로 썼는지 판단해야 한다. 미래가 어떤 것이라는 확신인지, 화자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확신인지 두 가지 의미가 될 수 있으므로 지문을 보고 둘 중 어떤 의미인지 판단하자.
- ③ (나), (다)에는 부정적인 세계에 대한 화자의 대결 의지가 나타나 있다. - 부정적인 세계와 대결 의지가 판단부위이다. 부정적 세계는 화자에게 고통이나 시련을 주는 현실이면 된다. 대결 의지란 그 것을 헤쳐나가고 이겨나가겠다는 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④ (가), (나), (다)에서 화자는 과거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 반성이 있는지 반성이 과거에 대한 것인지 판단하면 된다.
- ⑤ (가), (나), (다)에는 삶에 대한 화자의 고뇌가 나타나 있다. - 답이 될 수 있는 서지. 상당히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답이 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화자의 고뇌가 판단부위인데 고뇌가 나왔는지 또 그 것이 화자의 고뇌인지 판단하면 된다. 실전에서는 일단 고뇌만 판단하고 답이 안 나오면 화자의 고뇌인지도 판단한다. 주체를 바꿔서 오답을 만드는 경우도 있으므로 화자의 고뇌인지 살피는 것도 문제를 풀 때 눈여겨 보아야한다. 09년에 시행된 6월평가원(10. 6월 평가원)에 출제된 14번 문제의 선지5번이 그런 경우이다(정지용의 시 '발열'에 대한 문제). 선지5번 : 바,스은 의식이 혼미해진 애의 상태를 보여 주는 데 효과적일 것 같아. 이 선지는 의식이 혼미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게 애의 상태가 아니라서 틀린 문제이다. 아이가 열이 나서 애타는 마음을 표현한 시로 부모의 어쩔 줄 몰라서 정신이 없는 것을 표현한 부분인데, 주체를 바꾸어서 틀린 선지로 만들었다. 선지를 만드는 방법이 재출제되므로 기출 선지를 분석하여 새로운 문제가 나올 때 판단 부위를 정확히 설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문제의 선지들은 모두 답이 될 수 있는 선지들이고, 답은 5번이다.

14. (가)와 (나)의 표현상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08수능)

- ① 대조적 어휘를 반복하여 공간의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 대조적 어휘가 있는지 그 것을 반복하였는지 판단하면 된다. '공간의 의미 강화'는 굳이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
- ② 의인화를 통해 사물의 속성을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 의인화만 판단부위이다.
- ③ 첫 연과 끝 연을 대응시켜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수미상관을 판단하라는 문제이다. 수미상관은 처음과 끝이 완전히 같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고 비슷한 경우 선지3번과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화자의 정서를 심화한다'는 판단부위가 아니다.
- ④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대상과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 대화체를 쓰고 있는지, 친밀감이 있는지 판단하면 된다. 대화체는 ~했습니다. ~이지요. 이런 어미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고, 이 어미들을 안 쓰더라도 청자를 설정했다면 맞는 선지가 된다. 청자를 설정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부른다는 것이다.
- ⑤ 역설과 반어를 통해 화자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역설과 반어가 판단부위이다.

이 문제의 답은 3번.

15.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08수능)

- ① ㉠은 ㉡와 달리 상승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 - 답이 될 수 있는 선지. 여러 번 출제가 된 선지로, 상승/하강 이미지를 구별할 수 있는지 묻는 선지이다. 상승 이미지는 말 그대로 올라가는 것들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아지랑이, 로켓 발사, 새가 날아오르는 것 이런 것들로 자연계에 많지는 않다. 반면에 하강 이미지는 내려가는 것으로 꽤 많은 편이다. 눈물, 촛농, 시냇물, 강, 번지점프 등등 보통 물과 관련된 것이 많다.
- ② ㉡는 ㉠와 달리 관습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 - 답이 될 수 있는 선지. 관습적 표현이 있는지 판단하면 된다.
- ③ ㉠, ㉡ 모두 화자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 답이 될 수 없는 선지. 무조건 맞다.
- ④ ㉠, ㉡ 모두 대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답이 될 수 있는 선지. 빗대어 표현하는지 판단하면 된다.
- ⑤ ㉠, ㉡ 모두 시간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답이 될 수 있는 선지. 시간적 배경을 특정한 물체나 형상을 만들어서 표현했는지 판단하면 된다.

이 문제의 답은 1번.

18.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08수능)

<보 기>

연시조는 단순히 평시조 몇 작품을 병렬적으로 늘어놓은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체로 각 작품들이 일관된 체계에 따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연시조는 질서 정연한 구성을 보이게 마련이다.

- ① 제1수는 시상 전개에 단서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 **답이 될 수 없는 선지.거주하는 선지 유형.**
- ② 제2수의 '계교'는 제1수의 '충효'와 관련되어 있다. - **충효와 계교와 관련있는지 판단하면 된다.**
- ③ 제3수의 '임천'의 좋은 점이 제2수에 드러나 있다. - **2수에 임천의 좋은 점이 나와 있는지 판단하면 된다.**
- ④ 제4수는 제2수와 제3수의 내용을 아우르고 있다. - **4수에 2수와 3수의 내용이 들어있으면 된다.**
- ⑤ 제5수는 제4수의 내용을 변주하여 시상을 심화하고 있다. - **4수와 5수의 내용이 비슷한가를 판단하면 된다.**

이 문제의 선지 1번은 일단 답이 될 수 없는 선지이다. <보기>를 보면 연시조는 각각의 연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선지2~5번을 보면 선지3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라고 설명되어 있다. 그런데 선지3번은 '~가 나타나있다'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틀린 선지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 문제의 답은 3번.

28.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09수능)

- ① 과거의 상황을 환기하며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 **과거의 상황인지 판단하면 된다.**
- ② 자연의 변화를 표현하여 화자의 미래를 암시한다. - **자연의 변화가 있는지 그것이 화자의 미래와 관련이 있는지 판단하면 되는데 실전에서는 자연의 변화가 있는지**

만 일단 판단하면 된다.

- ③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을 예찬한다. - 감각적 이미지는 무조건 맞는 선지로 판단할 필요가 없고 대상을 예찬하는지 판단하면 된다.
- ④ 관조적인 자세로 대상이 지닌 의미를 새롭게 발견한다. - 답이 될 수 있으나 가능성이 낮은 선지. 세 개의 시 모두 관조적인 시가 나올 확률은 적다. 관조적인 시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 ⑤ 섬세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애상적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 답이 될 수 있으나 가능성이 낮은 선지.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라는 문제에서 어조에 관한 선지가 답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앞에서 여러 번 확인했다. 섬세하고 부드러운 어조와 애상적 분위기가 판단부위이다. 고조시키는 것은 판단할 필요가 없고 애상적 분위기를 판단할 때 시 내용이 슬픔과 관련이 있으면 맞는 것이다.

이 문제의 답은 1번.

29.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09수능)

- ① ㉠과 ㉡에서는 시상이 확산되고 있다. - '시상이 확산된다'는 '시상이 심화된다.'와는 다른 표현임을 일단 알아야한다. 확산이란 퍼져나가는 것으로 시상의 즐거리가 같은 맥락으로 이어져야하며, 범위가 넓어지거나 의미가 강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은 슬픔을 전환하여 희망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으로, 앞의 내용에서 새로운 내용으로 전환되는 시점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서정주의 시 '추천사'에서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와 유사한 구절로 볼 수 있다. '추천사'는 앞에서는 계속 '어디로 가고 싶다. 날 밀어다오.' 이런 식의 전개를 하다가 갑자기 '그럴 수 없다'는 의미의 전환이 일어난다. 이 선지표현 자체는 이번에 새로 나왔지만 기존의 기출지문인 '추천사'를 통해 유사성을 확인해볼 수 있다. ㉡은 시상이 원래 전개와 이어지지만, 확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확산은 해당시의 ㉡의 바로 아래 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에서는 하나가 떨어지고 그 밑의 연에서는 많은 나뭇잎들이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문제처럼 시 전체가 아니라 특정 부분을 정해서 물어보는 경우는 판단부위가 아닌 상당히 일반적인 선지표현도 판단부위가 될 수 있다. 사실 '시상이 확산된다' 같은 선지표현은 포괄적이어서 공통점으로 적절한 문제를 묻는 문제에서는 굳이 판단할 필요가 없다.

- ② ㉠과 ㉡ 모두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 ③ ㉠은 ㉡과 달리 화자의 의지가 투영되어 있다.

- ④ ㉞은 ㉟에 비해 역동적인 느낌이 두드러진다.
- ⑤ ㉟은 사실의 기술이, ㉞은 관념의 표현이 부각된다.

이 문제의 선지들은 모두 답이 될 수 있는 선지들이다. 이 문제의 답은 3번.

30. (가)와 (다)를 대응시켜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09수능)

- ① (가)의 첫 번째 ‘아아’와 (다)의 두 번째 ‘어화’는 부정적 상황에 대한 비탄의 표현으로 볼 수 있군. - 답이 될 수 있는 선지. ‘부정적 상황’이 판단 부위. 부정적이라는 단어가 애매하기 때문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범위이면 된다. 설명을 돕기 위해 지문을 보면, (가)는 사랑하는 님이 떠나간 상황, (나)는 그리워하는 임과 이별한 상황이므로 둘 다 부정적이라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맞는 선지가 된다.
- ② (가)의 ‘차디찬 티끌’과 (다)의 ‘새벽 서리’는 허무하게 깨진 인연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통하네. - 답이 될 수 있는 선지. 각각의 시어가 허무하게 깨진 인연을 의미하는지 판단하면 된다. 선지의 자세한 설명을 위해 지문을 보면, (다)의 새벽서리는 단순한 자연물로써 시의 분위기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시의 분위기를 만드는 시어들을 구체적인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묻는 문제가 이 선지 외에도 출제된 적이 있다. 자연물의 의미를 물을 때는 자연물이 단순히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 ③ (가)의 ‘꽃다운 님의 얼굴’과 (다)의 ‘아리따운 고운 얼굴’은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 - 답이 될 수 있지만 가능성이 낮은 선지. 선지들로 보아 이별의 상황이고, 이별의 상황에선 나와 사랑하는 대상이 이렇게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 예찬되는 대상은 거의 대부분이 당연히 사랑하는 대상이다. 특히 이별의 상황에서 자신의 외모를 예찬할리는 없으므로 맞은 선지일 가능성이 높다.
- ④ (가)의 ‘눈물’과 (다)의 ‘시름과 한’은 이별로 인해 생겨난 슬픔이라 할 수 있어. - 답이 될 수 있지만 가능성이 낮은 선지. 이별의 상황에서 눈물, 시름과 한 같은 용어는 당연히 이별로 인해 나온 감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 ⑤ (가)의 ‘다시 만날 것’과 (다)의 ‘좋은 기약’은 ‘님’과 만나고 싶은 소망과 관련되겠군. - 답이 될 수 있는 선지지만, 위 선지들로 보아 이별의 상황임을 알 수 있으니, 다시 만날 것과 좋은 기약 두 시어 모두 만나고 싶은 소망과 관련 있다고 알 수 있다. 따라서 맞는 선지일 것이다.

전체적인 선지내용으로 보아 (가), (다) 둘 다 이별의 상황이므로 1번도 맞는 선지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문제의 답은 2번이고, 선지분석으로 살펴본 결과도 답이 2번임이 거의 확실하다.

31. <보기>를 바탕으로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09수능)

<보 기>

「님의 침묵」에서 ‘노래’와 ‘침묵’은 화자와 ‘님’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는 시어이다. 한용운은 시 「반비레」에서 “당신이 노래를 부르지 아니하는 때에 당신의 노랫가락은 역력히 들립니다그러 / 당신의 소리는 침묵이에요”라고 했다. 침묵이라는 부재의 상태에서 ‘님’의 실재를 본 것이다. 화자는 ‘님’을 향해 ‘노래’를 부르는데, 시 「나의 노래」에서 “나의 노래가 산과 들을 지나서 멀리 계신 님에게 들리는 줄”을 안다고 했다. 이는 **화자가 자신의 노래에 ‘님’과 근원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① 노래가 제 곡조를 못 이긴다는 것은 ‘님’이 침묵하는 상황을 화자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뜻이야.
- ② 노래가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돈다는 것은 화자가 부재 속에 실재하는 ‘님’과 깊이 교감한다는 뜻이야.
- ③ ‘나의 노래’가 산과 들을 지나서 멀리 나아간다고 한 데서 ‘사랑의 노래’가 자연 친화적임을 알 수 있어.
- ④ 침묵을 휩싸고 도는 노래가 ‘사랑의 노래’라는 것은 침묵이 끝나야 사랑이 비로소 시작되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
- ⑤ 침묵하는 ‘님’에게서 노랫가락을 역력히 듣는다는 데서 ‘사랑의 노래’가 화자의 노래가 아니라 ‘님’의 노래임을 알 수 있어.

이렇게 보기와 관련되어 ‘적절한’ 것을 찾으라는 문제는 시의 내용과 별 상관없이 보기와 관련된 것만 찾으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기에서 필자가 밑줄로 표시해놓은 부분이 보기의 핵심이다. 따라서 선지 중에 ‘소통’과 관련된 것을 찾으면 된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된다.

32.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09수능)

- ① 1연, 2연에서 유사한 구조의 문장을 사용함으로써 대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화자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 반복하여 의미를 강화한다는 선지이므로 당연히 맞는 선지. 거저 주는 선지 유형.

- ② 1~3연에서 ‘골짜기’→‘길’→‘대추나무’→‘나뭇잎 하나’로 시적 대상이 바뀌면서 화자와 대상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다. - **답이 될 수 있는 선지. 정말 가까워지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 ③ 1~4연에서 ‘그러니까’, ‘문득’, ‘마침내’와 같은 부사는 독자로 하여금 화자의 인식에 주목하게 하고 있다. - **답이 될 수 없는 선지. 거저 주는 선지 유형.**
- ④ 4연에서 ‘저마다 한 개씩’이라는 시구를 반복함으로써 세상과 화합할 수 없는 존재의 고뇌를 강조하고 있다. - **답이 될 수 있는 선지. 세상과 화합할 수 없다는 내용인지 확인해봐야 한다.**
- ⑤ 4연에서 화자는 생성에서 소멸에 이르는 자연물의 변화 과정을 통해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있다. - **답이 될 수 없는 선지. 거저 주는 선지 유형.**

**이 문제의 답은 4번.**

33. <보기>를 참고하여 [A]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09수능)

<보 기>

시조나 가사에는, 임과 헤어져 있는 화자가 어떤 특정한 자연물로 다시 태어나서 임의 곁에 머물고 싶다는 진술이 흔히 나타난다. 이러한 진술은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기 위한 관습적 표현인데, 그 속에는 당대인들의 세계관이 투영되어 있다. 인간과 자연이 깊은 관련을 맺으며 조화를 이룬다는 인식, 현세의 인연이 후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순환적 인식 등이 그것이다. 시가에 담긴 이러한 인식은 화자가 현실의 고난이나 결핍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 ① 관습적인 표현을 활용한 것은 개인적 정서를 보편적인 것으로 느끼게 하는 데 효과적이었겠어. - **답이 될 수 없는 선지. 거저 주는 선지 유형.**
- ② 비슷한 의미 구조를 지니는 구절을 거듭 제시함으로써 화자의 소망이 간절함을 강조하고 있어. -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한다는 내용으로 당연히 맞는 선지. 거저 주는 선지 유형. 바로 위의 09수능 32번 문제의 선지1번과 똑같은 선지이다.**
- ③ ‘오동’, ‘제비’, ‘나비’ 등이 사용된 데서, 인간과 자연이 관련되어 있다는 화자의 인식을 엿볼 수 있어. - **답이 될 수 없는 선지. 거저 주는 선지 유형.**
- ④ ‘조각달’이나 ‘잘새’ 같은 소재에는 ‘님’과 함께 크고 넓은 세계로 도약하려는 화자의 희망이 담겨 있어. - **답이 될 수 있는 선지. 크고 넓은 세계로 도약하려는 내용이 있는지, 또 님과 함께 도약하려고 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⑤ 자연물로 변해서라도 ‘님’과 만나려 하는 것을 보니 화자가 ‘님’과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어. - 답이 될 수 있지만 가능성이 낮은 선지. 일반적으로 고전에서 자연물로 변한다고 할 때,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화자의 소망을 형상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문제의 답은 4번이고 선지분석을 통해서도 4번이 답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